

같이 보기

: MBTI와 성격유형

요즘은 첫 만남에 “혈액형이 뭐예요?”보단 “MBTI가 뭐예요?”라는 질문이 인기가 많다. MBTI는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해 설명해주는 심리검사로,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형을 보는 방법은 직관적이다. 성격이 외향적이면 ‘E’, 내향적이면 ‘I’로 나뉘고 인식의 기능에 따라 감각 ‘S’, 직관 ‘N’으로 나뉜다. 판단 기능은 사고 ‘T’, 감정 ‘F’로 나뉘며 생활양식은 판단 ‘J’, 인식 ‘P’로 나뉘게 된다. 각각 2가지로 나뉜 4종류의 분류 기준에 따라 ‘INTJ’, ‘ESFJ’ 등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다. MBTI 테스트는 성향,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좋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글 홍창배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센터 사내기자



MBTI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사우들의 MBTI는?



MBTI란?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뜻하는 것으로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 Briggs)와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 Myers)가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을 근거로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다. 이 지표의 개발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유래했다. 징병제로 인력이 부족해졌고, 총력전으로 군수 공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남성 노동자가 지배적이던 산업계에 여성이 진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에 적합한 직무를 찾도록 할 목적으로 1944년에 개발되었다. 캐서린과 이사벨은 평소 사람들 성격 분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어머니 캐서린이 칼 융의 『심리유형』을 읽고 완전히 빠져 그의 이론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캐서린은 융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미국에 방문한 그를 찾아가 일부러 만나기도 한다). 어머니의 연구를 이은 딸 이사벨이 현재와 같은 형태의 MBTI의 프로토 타입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1943년, 이사벨은 11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성격검사 설문지를 책자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였다.



이사벨이 5살 때 찍은 모녀 사진

- 캐서린 쿡 브릭스(Katharine Cook Briggs, 1875-1968) : 엄마
-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riggs-Myers, 1897-1980) : 딸



같이 보기

: MBTI와 성격유형

16가지 성격 유형의 대표적 특성

ISTJ

책임감이 강하며, 현실적이다. 매사에 철저하고 보수적이다.

ISFJ

차분하고 헌신적이며, 인내심이 강하다. 타인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인다.

INFJ

높은 통찰력으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INTJ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다. 분석력이 뛰어나다.

ISTP

과묵하고 분석적이며, 적응력이 강하다.

ISFP

온화하고 겸손하다. 삶의 여유를 만끽한다.

INFP

성실하고 이해심 많으며, 개방적이다. 잘 표현하지 않으나, 내적 신념이 강하다.

INTP

지적 호기심이 높으며,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한다.

ESTP

느긋하고, 관용적이며, 타협을 잘한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능숙하다.

ESFP

호기심이 많으며, 개방적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한다.

ENFP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다. 일상적인 활동에 지루함을 느낀다.

ENTP

박학다식하고, 독창적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ESTJ

체계적으로 일하고, 규칙을 준수한다. 사실적 목표 설정에 능하다.

ESFJ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친절하다. 동정심이 많다.

ENFJ

사교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비판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ENTJ

철저한 준비를 하며, 활동적이다. 통솔력이 있으며, 단호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사실 위 이론은 등장한 지 80년도 더 지난 이론으로, MBTI가 인간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MBTI 검사에서 사용하는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해 중간을 허용하지 않고 A이거나 B라는 식으로 성격을 양분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MBTI를 애용하는 젊은 층은 MBTI의 정확성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쉽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는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MBTI를 통해서 씬을 만들거나 연애 상대를 찾는 게 더 수월해졌다고,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나 감정소비를 하고, 시간 소비를 하는 수고를 줄여준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환경과 경험을 지닌 둘이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로운 조합이 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나 곡절이 있음이 당연하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을 영화에서 재미없는 부분을 건너뛰기 하듯 SKIP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고지에 가까워지기 어렵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그 이면에는 이해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 보기 싫다는 '이기심'과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심' 간의 싸움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가 '나다운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개성'을 행동에서 표출하는 건 결국 '서로 다름'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MZ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것 또한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그에 맞는 '상호 존중'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다는 MBTI는 사실 자신 이외의 사람을 이해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순과 부조화를 빚고 있다. 관계에 있어서 '이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임'이다. 인간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건 성격에 대한 분석과 분류가 아니라 '이해와 관용'이다. 물론 무관심보다 낫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상대에 대해 알 때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한층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Myers, Isabel Briggs with Peter B. Myers, 1995. 1980.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Mountain View, CA: Davies-Black Publishing. ISBN 978-0-89106-074-1.
2. Katharine E. Cook Briggs 논문-UA.10.3.68, 미시간 주립 대학 아카이브 및 역사 컬렉션, 이스트 랜싱, 미시간.
3. "MBTI® 역사 및 Isabel Briggs Myers 및 Mary McCaulley에 대한 찬사". bewhoyouare.net.
4. "MBTI®의 놀라운 이야기 : 예상치 못한 두 이론가가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성격 테스트를 만든 방법". 조판 기. Truity Psychometrics LLC.
5. "이샤벨 브릭스 마이어스 이야기". capt.org.
6.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개발 Edge Consulting Ltd.
7. "MBTI 평가의 역사". 잠재력을 열다. Myers-Briggs Company.
8. Emre, Merve. "인격 브로커 : Myer-Briggs의 이상한 역사와 성격 테스트의 탄생".
9. "이샤벨 브릭스 마이어스". MBTI. Myers & Briggs 재단.
10. "Myers-Briggs : 당신의 타입을 아는 것이 돈을 지불합니까?". 워싱턴 포스트.

